

발행인	민수현
편집인	차재봉
주필	안재봉
편집장	안재봉
발행처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전화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3가26(2260-3492)
팩스	FAX (02)279-1270
경북	780-714 경북 경주시 석강동707(2770-2057)

감정대립'극'... 학생회신뢰 '구멍'

비상학대회, 선거연기 무효-11월 실시 의결

학생회에 대한 기본적인 관점 재정비해야

총학생회선거연기결정을 둘러싼 학생회차원의 논란이 대자보공방으로 파문이 확산되는중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학내구성원들의 여론이 높다.

대자보를 통한 이번문제에 대한 공방은 감정적 대립으로 확산돼 해결의 방향이 빛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지난 14일 총학과 총대측에서 대자보화한 '취파이프 문제'에 대한 내용이 감정적 대립으로 표면화돼 아직까지 명확한 진위를 가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이날 붙은 대자보 중에는 총학의 탄핵소추발의, 집행부 진원사퇴를 요구하고 있어 양측간의 감정적 대립이 가시화 되기도 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대자보공방은 학생회 신뢰를 떨어뜨렸다.

총학생회선거연기결정을 둘러싼 학생회차원의 논란이 대자보공방으로 파문이 확산되는중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학내구성원들의 여론이 높다.

총학생회선거연기결정을 둘러싼 학생회차원의 논란이 대자보공방으로 파문이 확산되는중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어 이의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학내구성원들의 여론이 높다.

한편 총학은 이번문제의 해결을 위해 오는 22일 중앙당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지금까지 파문을 일으킨 취파이프문제와 인신공격의 진위여부를 가릴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문제가 지난 9월17일 연기결정뒤이후 근 한달여에 걸쳐 해결점을 못 찾았다는 점에서 총학의 공청회가 얼마만큼의 대중성을 담보할지는 미지수이다.

이번 선거연기결정을 둘러싼 총학과 총대를 비롯, 원칙적인 측면에서 11월선거 연기를 반대하는 몇몇 학생회조직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기간에 보충된 감정적 대립을 일차적으로 해소해야 된다는게 중론이다.

즉 학생회전체차원의 신뢰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공청회나 학생대표자회의를 통한 양측의 합의점을 도출시켜내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부고속전철 경주캠 관통

체육관·한의대건물 철거 불가피

1998년말 완공예정인 경부고속전철 경주역역지 및 노선안이 경주캠퍼스를 관통하는 비교노선안으로 변경·확정돼 학계와 경주시민들의 반발을 사

신입생 모집요강 확정

전기만 실시-장학제도 전면 조정

교무처는 93학년도 신입생모집요강을 지난 19일 교육부의 승인을 거쳐 확정·발표했다. 이번 입시요강에 따르면 지난해와 달리 서울·경주캠퍼스 모두 전기모집만 실시하며 모집인원은 서울캠퍼스 2천3백50명, 경주캠퍼스 1천6백90명 등 총 4천40명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백20명 증원된 것으로 서울캠퍼스 야간·경주관리학과(정원 30명) 신설, 전기전자기계에서 전자공 20명, 전기공 10명을 비롯 화학공 20명 등 50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이다. 또 경주캠퍼스 자연계열에서 전산통계학과(정원 40명)가 신설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특이한 사항으로는 △에너지계열 연극영화과는 이론·연출분야와 연기·기술분야로 나뉘며 전자는 실기고사를 실시하지 않음 △특별발전형으로 산업체근무자를 야간강좌 개설학과 입학정원의 30%모집(서울캠퍼스 6개학과 84명, 경주캠퍼스 2개학과 24명) △서울·경주 모두 전기모집만 실시 △93학년도 신입생 장학제도 전면 조정됨이며 장학금 지급조건은 전체·캠퍼스별·단과대학별·학과별 수석 등으로 분류, 장학명을 정하고 학력고사 3백점 이상인자에 한해 21세기 장학 신설등이 주요 내용이다.

93년 연구년교수 확정

교무처는 오는 93년 3월부터 94년 2월까지 1년간 이루어질 연구년 해당교수와 연구과제를

제7회 동대문학상 작품모집

본사에서는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 문단을 이끌어 나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 하교자 다음과 같이 '제7회 東大文學賞' 작품을 모집합니다.

- ◇모집분야: 시 부문: 3편 내외, 소설부문: 60매 내외(200자원고지 기준), 평론부문: 60매 내외(200자원고지 기준)
- ◇응모자격: 본교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 ◇제출기간: 1992년 11월 9일(월)~13일(금)
- ◇심사: 시 부...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본상 25만원, 장려상 20만원, 평론부...본상 25만원, 장려상 20만원
- ◇심사위원: 본사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 ◇입상작 발표: 1992년 11월 25일자 동대신문 紙上
- ◇작품 제출처: 본사 총무부
- ※제출작품은 반환하지 않음.

동대신문사

변수

바닷가에서 자라는 나무는 해풍에 시달려 등이 굽는다. 반대로 깊은 산에서 자라는 나무는 울울창창한 거목이 된다. 환경이 식물의 생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다. 사람도 그렇다. 가정환경, 교우관계가 나쁜 사람이 원만한 인격과 품성을 갖기란 어렵다. 도지에서 자란 아이와 시골에서 자란 아이의 정서는 분명 많은 차이가 있다. 물론 환경이 모든 존재의 성장조건에 절대적 요인일 수는 없다. 때로는 어려운 여건에서 오히려 성공의 발판을 마련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이런 예는 몇몇 특수한

사람의 경우에 해당된다. 더 많은 보통사람은 주변에 조건지어진 환경에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는다. 맹자의 어머니 유모 여가에 있었다. 진리를 탐구하고 수행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예외

좋은 벗[善友]

“아난다여, 그렇지 않다. 좋은 벗과 사귀는 것은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렇게 알고 좋은 벗과 사귀기를 힘 쓰라.”

좋은 벗과 사귀는 일이 수행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라 하던 예가 나온다. 어느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이런

교유(交遊)해야 하는가를 이르는 가르침이다. '근목자축(近墨者黑)'이라 했다. 흰 것을 가까이 해야 깨끗해지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더러워진다. 누구와 어떻게 사귀는가는 한사람의 인성을 좌우하는 상수(常數)이다. 여기서 우리는 자신에게 한가지 물어볼 말이 있다. '지금 나는 좋은 벗과 사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남에게 좋은 벗이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지금 내가 좋은 벗과 사귀지 못하고, 남에게 좋은 벗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절반이 아니라 전부를 잃게 될 지도 모른다. 오늘 저녁 소숫잔을 마주놓고 만나는 친구의 얼굴과, 그 친구의 얼굴에 투영된 자신의 얼굴을 다시 한번 살펴볼 일이다.

장학금 지급내역 발표

2천8백여명 14억원 수혜

92학년도 2학기 교내의 장학금은 총 수혜자 2천8백8명에 모두 14억4천364천원이 지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학과의 장학금 지급내역에 따르면 교내장학금으로 입시성적우수장학 4백36명(특히, 92학년도 입시성적우수장학 수혜자는 2백83명으로 1억9천6백75천944백50원이 지급됨), 성적우수장학 8백68명, 학생회 간부장학 4백19명, 근로장학을

대부속병및 학교건물에 심각한 소음·진동피해 △경주문화재 보존에 역행 등을 들어 비교노선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비교노선안 확정에 대한 공단측의 입장이 강경한 만큼 학생들 중심의 시민홍보등을 통해 반대운동을 확산시켜야 할 것으로 보이며 공단측도 문제부서인 변경안에 대한 재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성원에 감사드리며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개원3주년 기념

의학도 身土不二

한방이 우리체질에 맞는 처방이라는게 과학적으로 증명된지 오래입니다.

인간을 먼저 생각하고 인류복지를 추구하는 수천년 한방의 전통을 오늘에 살리고자 모든 의료진은 오늘도 섬세한 한방치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설클리닉

- 중풍센터
- 수침클리닉
- 침구치료실
- 척추관절센터

※할인혜택

- 30% : 본교 교직원
- 20% : 교직원 가족, 재학생
- 10% : 졸업생, 불교신자

동국한방병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1동 837-13
전화 : (대)536-5599

최근 간첩사건 그 진상과 저의

남로당 이후 최대의 간첩사건이라는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연일 시끄러웠다. 또 일간지 사설은 '진짜 늑대가 나왔는데도'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지 않아 큰일이라고 올상이다. 국민의 절박가까이 이번 사건을 사실로 믿지 않는다는 세계일보의 여론조사결과가 발표되었고 대학생 의식조사에서도 80% 이상이 불신을 드러냈다.

인기부는 사건중간발표를 통해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이선실이 최근 10년간 서울에서 남파간첩 10여명을 지휘해 '북한공작지도부'를 구축, '남한 조선노동당'을 결성했다'고 하며 '김낙중, 황인오, 손병선을 각각 주축으로 하는 무전간첩망 가담자 4백여명중 62명을 구속하고 경인, 영남, 호남지역당 조직과 정치, 노동, 학원, 재야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선을 불과 2달남짓 남겨놓은 시점에서 타인이 사건에 대해 인기부의 '이번은 진짜'라는 주장과 절박가까이 '대선용'이라는 주장 사이에서 이 사건의 실제적 진실은 과연 무엇인가?

이 사건은 인기부가 '간첩사건'을 내세우며 변호인 접견까지 차단해 사건의 실제과정에 대단히 어려움이 있는 실정인데 지금까지의 한정된 조건에서나마 실재를 파악해볼때 인기부의 수사발표와 사건의 실상과는 다음과 같은 현격한 차이와 의문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 조선노동당 그리고 이선실의 실제

이 사건으로 구속된 그 누구도 '남한조선노동당'을 아는 사람은 없다. 또한 이선실이 북한 공작지도부의 총책임자라는 근거 또한 제시되어 있지않다. 이선실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존재한다. 문익환씨가 사인에 주었다는 책, 정기표씨가

확대·왜곡하려는 조작흔적 '곳곳'

국민-야권-재야 분열시키려는 의도 개인적 친분관계까지 간첩혐의 적용

주었다는 책을 이선실이 북한으로 돌아간지 2년이 지난 지금 어떻게 입수할 수 있었으며 2년전에 이선실이 정기표씨와 단둘이 했다는 대화록 안기부가 어떻게 알고 있는지. 민중당 창당때 2천만원을 기부하고 민중당에 축시를 기고했을뿐 아니라 민중당 사무실에도 자주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 등 상당한 눈 에 띄는 존재인 이선실의 정체를 수사기관이 미리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이선실이 재일조총련계로서 북측 축출은 신승녀의 이름으로 모국방문단으로 입국한후 영유국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 그동안 감시받았다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인기부의 발표에 따르면 이선실이 1966년, 1973년에 남파된 바 있다고 하고 1980년 이후 10년동안 암약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전혀 제시되어있지 않다. 이러한 의혹은 대선을 앞두고 이선실의 실제에 대해 여타의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어 인기부에 접거되었거나 인기부의 프락치가 아닌가하는 소문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의 실제

'중부지역당'과 관련해 현재 57명이 구속되었는데 이들을 실제 북한으로 보냈다는 증거도 없고 조적에 가입한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92년 7월 '중부지역당'이라는 조직을 결성했다고 하는 자리에 참가

했던 4명중 하나인 정경수씨는 조직명칭을 '중부지역당'이 아닌 '민족해방 애국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입당권유를 받았으나 입당식 참여를 기피, 입당자세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민전에 가입했지 노동당에 가입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하는 등 상당한 애매함과 혼란이 존재하고 있다.

중부지역당을 거대한 조직으로 인식케하는 주된 이유는 '애국동맹' 인바 이 애국동맹은 원래 최효경씨가 중부지역당 결성전 개인적으로 조직, 관리해왔던 '1995년 위원회'를 대폭 축소, 정제화시킨 것인데 '중부지역당'이 애국동맹을 산하 조직으로 흡수했다'는 인기부의 발표와 달리 최효경씨를 제외한 대부분 조직원은 사건이 터지기까지 중부지역당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또한 중부지역당 산하의 총북도당과 총남도당은 위원장 한명이 선 임되어있는 정도의 열악한 조직인데 비해 강원도당은 애국동맹이 하 부조직인 비대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들이 '강원도'라는 지역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효경이 도당 지도자로 있던 강원도당에 '애국동맹'을 그대로 편입시킨 것이다.

인기부의 발표와달리 이 사건은 실제 조직규모보다 확대, 왜곡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조직과는 전혀 무관한 개인적 친분관계이거나 '1995년 위원회'에 참여하다가 이 사건이 터지기 훨씬 전에 조직적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 심지어 아무런 조직적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도포에 그려져 있다.

이른바 군사기밀 누설, 간첩혐의에 대하여

인기부는 중부지역당 사건 구속자 57명중 11명에게 간첩혐의, 7명에게 간첩방조혐의를 씌어 경찰에 송치하였는데 이들중 임복을 하였거나 직접 북한과 연락을 가졌던 사람은 한두사람에 불과하다. 인기부는 입당여부를 기준으로 간첩죄를 적용하였는데 이는 대단히 무리한 적용이라고 판단된다.

황인오씨는 변호사 접견과정에서 "이근희씨가 친구인 황인오에게 북사해준 2급 군사기밀은 연금 종류에도 공개된만한 평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북한으로의 보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고 한다.

또한 우진성씨의 경우는 최효경씨가 자주군대이론을 정립하는데 도와달라고 해서 대학후배에게 군대정형을 진술한 글을 부탁했으며, 이를 내용도 보지않고 최효경씨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북한으로 전달하지 않았음)

이들의 혐의사실을 살펴건대, 이들의 행위는 단체만을 조직하였을 뿐이므로 국가보안법 상의 반국가단체 가입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다. 따라서 형법상, 국가보안법 상의 간첩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분단상황으로 말미암아

왜곡되어온 '간첩'이라는 개념을 바로잡아야 한다. 물론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고 대중적 설득력을 갖기에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지만 그런만큼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일련의 간첩사건에 대한 파장

이 일련의 간첩사건의 파장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연합의 기운을 깨뜨리는데 악용될 소지가 크다. 인기부는 북한이 이 사건 관계자들에게 '대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는 등 야권익의 관련설 등이 사건에 정치권이 개입된 양 계속 발표하고 있고 불고지 혐의로 정기표씨 구속, 아무런 확인과 검증없이 문익환씨의 방북에 이선실 개입 가능성, 전대협·민가협 등을 거론, 마치 야권과 재야 모두가 간첩의 사주꾼을 받고 있는 것처럼 발표하여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이는 바로 국민과 재야, 그리고 야권을 분열시키려는 그 저의가 있는 듯하다.

또한 대선결과에 따라 비상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반공수호를 벌이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다.

대선과 남북관계의 진전에 악재로 작용될 수 있는 이번 사건이 갖는 여타의 의혹점을 분석시킬 수 있도록 광명정대하게 진상을 밝히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남규선 <민가협 간사>

수필형식 빌어 사회모순 지적 "운동의 방향성까지 제시하는 글의 깊이 돋보여"

그들이 대통령되면 누가 백성노릇을 할까? 백기완 지음/백산서당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는 한 영웅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기다린다. ...질곡에 빠진 역사의 진보, 혁명적 또는 미적 교착을 단방에 깨뜨리는 한소리 소리꾼, 이름없는 민중이다. ...여기 모은 글들은 내가 일생동안 써들해온 역사의 정점, 민중적 정점들을 수필형식의 정서적 방법으로 풀려해온 흔적들이다."

우리에게 익히 잘 알려진 백기완 선생은 그의 칼럼 '그들이 대통령이면 누가 백성노릇을 할까'의 책머리에 이렇게 쓰고 있다.

총5장 서른하나의 이야기가 담긴 이 책에서 지은이는 "지금 변혁과 진보의 의지가 죽은 듯이 내몰리는 현실의 판을 갠 새책이어나오라"고 외치고 있다.

1장 '사람을 찾노라'는 선생의 추억들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만난 사람들 속에서 참새상을 안아올 참사람을 찾고 있다. 특히 '젊은이여, 분해당하지 말라'는 발췌까지 붙여넣은 도서관을 보며 '혹 밀친(대학출신)으로 자기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 저런다면 어떻게 하나'며 자본주의의 거대한 재생산구조속의 한 기능인으로 분해되기를 강요받거나 자신을 소시민적으로 분해시키는 것을 우려한다.

2장 '이거 씨원한 이야기 한번 없습니까'는 사회 전반적인 문제를 날카롭게 비판하며 그 극복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3장 '개발을 해체해야 한다'는 개발의 사회적 약기능과 이로인한 민중의 피해와 땅문제, 골프장, 쉼수입개방의 문제 등을 지적하며 민중생존권투쟁을 강조한다.

4장 '그들이 대통령되면 누가 백성노릇을 할까'에서 지은이는 정치정세, 국민들이 속박돼 있는 지역간 격차, 양심의 위상을 설명하며 92대선에서 어떠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5장



"고후 잘 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겁니다"는 사회모순을 파편적으로 다루면서 '우리사회가 무엇이 문제이고, 왜 문제인가'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하는 운동의 원칙·방향성을 같이 제시해 주고 있다.

이 책은 지은이가 밝힌대로 수필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비록 추억속의 한 사건을 통해 담담하고 풍자스럽게 쓰고 있지만 이시대 이 사회를 같이 아파하는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진정한 청년학도의 임무가 무엇인가를 자각하게 하며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게 만든다.

필자는 이 책 서른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이기주의화되고 개인주의 중성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요즘 젊은 세대의 세태를 비판하며 역사의 주인으로 서게끔 도전 채찍질을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 책의 소중함은 지난날의 에피소드에서 변혁운동의 지침과 가치를 제시하는 글의 깊이, 그리고 소박한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필자의 역사관, 가치관이 아닐 수 없다.

(사회부)

동약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의 '제25대 총학 선거 3월연기 결정' 이후 학내에 한탄 큰 물살을 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시시비비도 그렇겠거니와 눈에 띈 곳마다 뻘뻘히 들이선 대자보마다 '최파이프의 진상, 전원 사퇴, 탈핵소추, 신비한 제형...등 사실 미확인 주장'이나 격한 감정의 글들이 끊이지 않는 공방전은 최근까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처음엔 사건의 발단과 선거연기에 관한 찬·반안에 대해 공금중단을 가지고 지켜보던 학생들은 "총대 항의방문 갔던 예들이 최파이프를 들고 갔더라" "다른 대자보 보니까 사실이 아닌 것 같더라"라는 정도의 반응이었다. 그러다가 총학이 대자보를 통해 "최파이프의 진상을 규명하겠

다"며 "이것이 거짓이면 집행부는 전원사퇴 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여 발단된 문제 해결보다 항의방문한 학생들과 몇개 단과대 학생회장들의 도덕성 문제를 쟁점화시킨 감이 많았다. 또 이에 반하는 경성대 대자보의 인신공격

할말 못할말

적 양상의 글들은 학생들의 반응을 극히 회의적으로 들고 갔다. "이무리 중대사안이라지만 어떻게 최파이프는란이 대자보로 공개될수 있는지, 이런 누워서 침뱉기나 다름없어."

"이제 감정싸움으로 일관이야"

라는 학생들의 반응에도 열서까지 써가며 서로의 감정 표현에 여념없는 대자보 논쟁은 쉽게 끝나지 않고 있다.

다행히 15일 동아리연합회 명이 성명대자보나 철학과 학생회장 윤수현양 등이 내보낸 대자보가 학생들에게 지각·지성의 분위기를 내비쳤다.

그러나 정작 이 문제 해결의 1차적책임을 져야할 총학과 총대의 공식적 입장은 최파이프는란에게 대자보에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제 학생들은 '감정풀이'식 대자보 공방전으로 인해 문제해결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다.

대자보를 보며 되뇌이던 한 학우의 "나도 할 말 있다"던 말처럼 대학생회 주체들과 총학, 총대는 대자보만으로 시달려온 학생들에게 '말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할 것이다.

<박수로 기자>

제6기 전대협 임시 대의원 대회

제6기 전대협 임시 대의원대회가 지난 8·9일 양일간에 걸쳐 경희대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개최됐다.

6기 전대협(의정권대행=박종근·경희대 총학생회장) 출범후 처음으로 개최된 이번 임시 대의원대회는 7일 전야제를 갖고 8일부터 △대통령선거투쟁 방침 △후보전술 △하반기 대중투쟁노선 △전총련건설추진위원회 사업계획 상정 △권한대협 운영 등을 논의하거나 확정하고 특별안건으로 △법정학원 하반기 사업계획과 통일방안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반대투쟁이 논의됐다.

대선 후보전술은 당선가능 야당 후보지인간과 범민중단일후보 추대안이 절충된 범민중단일후보안이 다수안으로, 고려대총학생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24명의 전대협대

공동 선전·실천투쟁등 단결 결의 대선방침 '범민중단일후보안'으로 확정

의원 명의로 제출된 민중대통령후보추대안이 소수안으로 상정됐다.

9일 박연한대행은 "중요한 것은 민중의 한과 역동성을 푸는 정권교체"라고 전제하며 "국민의 생존권적 욕구와 정치적 진출을 보장해주는 방침은 무엇이든가로서 대선이 고민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방침은 △공식선전 △공동 실천투쟁 모색 △조직적 수준에서 거버넌스행함을 대의원대회에서 결의했다.

한편 전대협 하반기투쟁으로 △민주대개혁요구투쟁 △반노란민자당 투쟁 △부정선거 지지투쟁 △국보법철폐 및 양심수 석방투쟁을 결의하고 지역감정해소, 젊은층의 주권참여운동, 반미자주통일운동을 절실히 결할 것을 천명했다.

또한 전총련건설 추진위 하반기

계획은 조직확대및 재편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총련 건설, 여성·교육·대학원운동등 부문별연운동을 전총련 활동으로 포괄해 나아가는 것, 전국적 학원지주화 투쟁조직을 건설하는 사업 등이다. 박종근 전대협위원장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가인연대 11월3일 항우 전총련건설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것"이라며 제7기 전대협은 제6기 전총련 건준위 임시지도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대선방침 결정과정에서 87년의 오류를 다시 배우지 않겠다는 결의로 단결의 장이 되지만, 대선투쟁 전술에 이전 격차를 좁히고 공동투쟁하는 것이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상현 기자)

밝은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공사

한한 빛으로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한국전력이 있습니다.

빛은 꿈입니다.
빛은 희망입니다.
어둠을 가르는 한줄기 빛을 만드는 전기 -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고 산업의 원동력이 되어 꿈과 희망이 있는 밝은 미래를 열어가기 위한 한전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제2의 입시 취업 그 문제와 대책

역사의 주체로 옳고게 서기위해

4) 애국적 사회진출운동

해마다 수십만명의 대학생이 사회로 진출하고 있다. 취업. 이것은 사회로의 진출을 바로 앞둔 4학년 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들의 관심사이며, 현재고민인 대상이 되고 있는 문제일 것이다.

취업전경기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규모는 지난해보다 25%정도 감소된 2만여명을 밑돌 것이라고 한다. 취업난과 기존 인력의 해고감염 등 이른바 '고용문제'를 둘러싸고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80년에서 89년까지 약 20주년에 달하던 부채추진 흑자액 대부분이 사립·기술·시설에 투자되지 않고 비생산적 부분인 부동산에 투기됨으로써 한국경제의 어려움이 증폭되었고, 상품의 국제 경쟁력도 위축되어 갔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기업의 경우는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인력을 줄여나가면서 새로운 투자를 모색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규모를 줄이고 기존의 인력을 감원하여 고용불안정성을 높이는 원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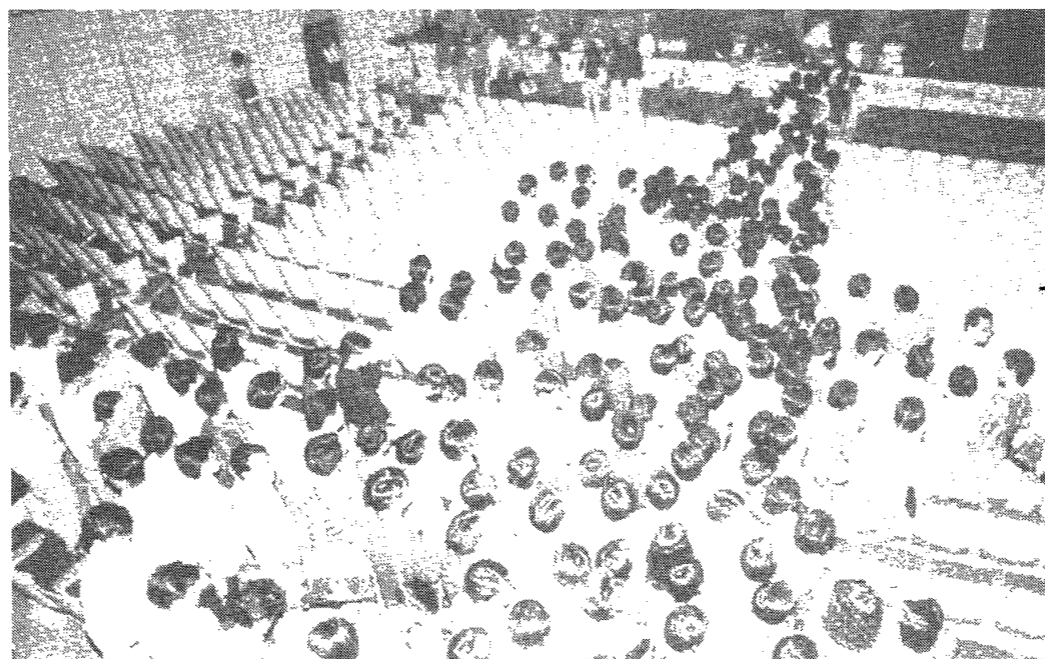
의 지배를 받은 상황에서 나타나는 봉건적, 가부장적 경영으로 인한 억압적 노동현실을 들 수 있다. 둘째, 인사관리의 비민주성과 불공정성이다. 셋째, 과도한 업무 부담 및 장시간 노동이다. 특히 여성 노동자의 경우는 더욱 열악한 상황으로 임금의 터무니없는 격차, 결혼후 퇴직의 강요, 승진기회의 불평, 심지어 남성 사원들의 전담부담과 퇴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애국적 사회진출

이러한 현실은 청년학생시절의 진리추구와 애국적 열정을 현실에 발휘하려고 오로지 입상생활에 매몰되어 소시민으로 살아가게 강요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로 진출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삶의 주체로 올바르게 등장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담아내는 과정이 '애국적 사회진출운동'인 것이다.

그럼, 사회진출이 갖고 있는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대부분의 졸업예정자들에게 '애국적 사회진출'의 의미들이 퇴색해지고 있다. 그러나 자본주의 재생산구조의 한 부분으로 전락하기보다 역사의 한 주체로 삶을 영위하기 위해 학내 애국적 사회진출운동의 대중화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들어가고 보자” 식 사고 위험...노동자임을 자각해야 사회진출...자기실현으로 자주적인 삶 영위 참여 유도하는 다양한 방도마련...대중운동으로

노동자임을 자각

이와같은 취업의 어려움과 기존 인력의 감원현상으로 인해 적성에 맞고 자신의 처지와 조건에 맞는 직장을 선택한다는 것은 더욱 힘들어지고, 일단 “들어가고 보자”라는 식의 취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각 사회인이 된 직장인의 것은 이직률에서 볼 수 있듯이, 안정된 직장생활을 제해하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비효율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참고로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대학원 진학을 빼면 사부·전문직과 기술직 등의 인력노동자가 된다. 또한 사부·금융직에 진출한 대부분이 그들의 위치가 특권적이거나 보수적이었던, 그야말로 임금 노동자라는 사실을 자각해 나가고 있다. 이는 생산직의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무직을 비롯 한 인력, 전문기술직, 연구직, 교사에 이르기까지 직접 생산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하고 노조를 설립하고 자신들의 권리관급과 사외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진출하고자 하는 사부·금융직의 현실에 대해 좀더 알아보자.

사무직 노동자는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과 좋은 근로조건을 보장받았으나 생산노동자들과의 소득 격차와 노동시장에서의 필요를 초과하는 공급으로 말미암아 그들간에 경쟁이 벌어지고 이는 사무직 노동자의 지위를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사무직 노동자의 노동현실은 첫째, 봉건적 요소가 아직 잔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의제

의 의미를 살펴보자.

첫째로, 사회진출은 자기 실현으로 자주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이다. 사회에는 우리들의 자주적 삶을 가로막는 요인이 많다. 그러나 사회의 각 영역과 공간에서 개인이 자주적이고자 할 때 그 사회는 사회적으로도 또한 자주성의 실현으로 사회진출을 이해했을 때 집단의 자아실현 즉, 개인이 속한 집단의 자주성도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생활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생활인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서 자신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고, 자신의 노동력을 판다는 것은 현 사회체제 속에서 자본과 임금노동의 모순을 운운으로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다. 생활인의 삶이라는 말 속에서는 구조적인 모순을 현실적으로 더욱 가깝게 느끼기 때문에 생활속에서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 모순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셋째는, 민족 자주주의, 계급 의식, 민주적 권위의식을 확산시키는 사상의식의 전파자가 된다는 것이다. 자기실현과 생활인으로서의 삶은 결코 개인의 의지와 힘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각 영역과 공간에 진출한 개인이 힘을 합치고 단결했을 때만이 가능하다. 이러한 단결은 사상의식을 공유했을 때 확고하게 보장되는 것이다.

사회진출운동의 방도

자신이 나아갈 분야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에서 출발하여 이러한 세계관을 인생관화시킨 건강한 예비노동자상을 구현해내는 것이 사회진출운동의 중요한 방도이며, 따라서 학우대중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도와 방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진출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동아리나 소모임만으로 많은 한계가 나타나 수밖에 없다. 학생회, 기타 대중조직과의 연관성 속에서 다양한 접근이 시도되어 오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는 가설 수 있는 것이다.

운동의 방도는 실천사업의 결과물 속에서 나오는 전형에서 나타나며, 우리학교와 다른 학교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가지로 간추려 보자고 한다.

대중운동 속으로

이상에서 애국적 사회진출의 대중화를 위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실정은 대중운동의 모범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사회진출운동을 피하는 간부들의 부족을 낳게 하였으며 동시에 다수의 학생들로 격려, 그들이 운동의 주인공으로 나서서 과정이 되지 못했다.

사회진출모임을 중심으로 한 간부대오의 형성과 간부들이 대중운동속에 결합, 다양한 대중운동의 전형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사회진출운동이 3·4학년 고학년 대학원생의 자주적인 무기가 되어야 한다.

졸업준비위원회

비록 졸업준비위원회가 애국적 사회진출운동을 전담할 수는 없지만 예비, 현역, 여학생들을 포함한 4학년대의 사회진출 고민을 모아내어 이를 해결하는 데 큰 기여는 할 것이다.

노학연대 사업부의 강화

애국적 사회진출이 전체 학우대중을 포괄하고 학우대중에게 예비노동자로서의 확고시각을 주는데 있어서 노학연대사업부(사무전담부)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노학연대사업부에서 애국적 사회진출을 내용으로 한 단위의 소모임을 조직화하는 데 있어도 학우대중이 운동의 동시업을 모색하는 것부터 계속

지나해 E그를 공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김 아무개 군은 1년간의 힘든 취업준비 덕분에 합격했다는 자신감과 여유를 부리다 결국 고배를 들고 말았다. 채용인원의 3배수를 뽑고 면접에서 필기시험 합격자의 응을 떨어뜨린 기업방식, 즉 면접을 강화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라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지 못한 것이다.

게다가 영외회화, 전공·상식을 묻는 등 필기시험과 다를 바 없는 면접시험을 주고 다시 E그로에 도전하는 김군은 요즘 면접등 필기시험의 관련통과를 위해 여러 취업정보를 수집하면서 취업과 E그로에 입사한 동문이나 면접경험을 알려줄 수 있는 직원을 만날 수 없었느냐는 요청을 했다.

과거에는 ‘통과’ 정도를 넘겨줬던 면접이 이제는 오히려 필기시험보다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가고 있는 것이다.

취업상담실

④면접

필기시험 능가하는 평가내용 '긴장' 지원회사 정보수집 취업과 이용

실제로 최근에 필기시험을 생략하고 서류전형, 면접만으로 신입사원을 선발하는 기업들이 부쩍 늘고 있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이처럼 면접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기업의 발전에 있어서 ‘백지 한장 차이’인 실력의 우월보다는 인간성과 직무수행능력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으로 이러한 추세는 수험생에게는 그만큼 면접이 커다름과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중의 부담을 안겨준다.

입사시험에 있어서 면접이 노리는 점은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품의 필멸이, 즉 성격·직업관·인생관·잠재적 능력등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있다고 보여진다.

때문에 면접의 형태나 질문내용도 매우 다양해지고 전문화되고 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종류의 ‘면접 가이드북’들은 이를 잘 반영해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면접은 단독면접(면접위원 1인 : 수험생 1인)과 개인면접(면접위원 다수 : 수험생 1인) 형식을 취하지만 집단면접(면접위원 다수 : 수험생 다수)이나 집단토론을 채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또 회사에 따라서는 외국어와 회화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면접은 회사는 용돈나 태도·성격을 보지만 대외적으로는 인성관 및 생활신조·지원동기 등에 대해 물어, 회사는 UFO의 존재를 믿는가? 날아 성차별에 대한 견해를 묻는 등 회사에 따라 질문내용도 각각이 되고 있다.

이들 면접의 유형은 크게 1) 외부나 인성·생활의 상담내용·응시원서등의 자료 확인으로 면제 볼 수 있다. 먼저 외부의 경우는 호감을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연출해야 된다고 본다. 보상을 단정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건강해 보인다는 것, 성실성이 엿보이거나 대화 매너가 좋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질의 응답의 면접에서는 질문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보면 된다. 질문내용이 전공지식·외화·일반상식등 폭넓게 주어지고 있으므로 예상질문에 대한 예행연습이 필요하다.

응시원서를 중심으로한 확인 사항으로는 가족사항·부모직업·본인 이력·특기·면허나 자격증·취미·성격등을 묻는 것이 대중을 이룬다.

결국 면접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예의 풍행과 성실성,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사명감등의 정신사,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창의력 및 의지력, 기타 발전성등을 평가하고 있다.

상식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면접강화추세에 따른 면접대응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지원회사에 대한 정보수집이라고 하겠다.

우선 지원회사가 어떤 업종인지, 창시일이 언제이고 사회적 인식이 어떠한지 등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손자법에도 “나를 알고 남을 알면 백번 싸워 백번 이긴다”고 했다. 정보를 알기 위해서는 지원회사가 본인주변의 선배나 친척을 통해 알지 않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첫번째로 생각된다. 단일 마방한 조건자가 없다면 취업과 문 노드해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다.

취업과정보는 취업준비에 대비, 지난 학기에 교수나 직원들이 알고 있는 기업에 임직원들을 파악한 바 있고, 아울러 기업체 순방문을 통해 각 기업체별 재직자를 만나 정보를 얻고 있다. 또 취업자료에서는 면접대응 책자들이 비치되어 도움을 주리라 본다.

따라서 본인들이 조급한 주의를 기울여 지원회사의 면접형식, 예상질문, 모범답변 요령등을 익혀둘 수 있을 것이다.

짧은 시간에 자기자신을 표현해야 하는 면접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다고 어려운 것만도 아니라는 자신감을 가져 보자.

면접은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바른 몸가짐으로 솔직하면서도 분명한 자기사를 표현하는 등 면접의 관리를 통과하여 각자 지원회사에 합격의 영광을 차지할 것이다.

문 기 관 <취업과정보>

1993학년도 대학원 학생모집

1. 모집과정 및 학과

가. 석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독어독문학과, 일어일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한문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조경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화학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체육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나. 박사과정
 ●인문계: 불교학과, 선학과, 인도철학과, 국어국문학과, 영어영문학과, 사학과, 미술사학과, 철학과, 국민윤리학과, 연극영화학과, 교육학과
 ●사회계: 법학과, 정치학과, 행정학과, 경찰행정학과, 사회학과, 경제학과, 경영학과, 무역학과, 회계학과, 농업경제학과, 지리학과
 ●자연계: 수학과, 물리학과, 화학과, 통계학과, 농학과, 임학과, 응용생물학과, 전자공학과, 전자계산학과, 전기공학과, 토목공학과, 건축공학과, 식품공학과, 산업공학과, 가정학과, 한의학과, 의학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교학부로 문의하십시오.
 전화: 260-3093, 260-3094
동국대학교 대학원

‘학교채’를 매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병호 조순재 최경호 최홍식 하은정 현용필 홍용 황경수 <이상 경주캠퍼스 명단>

●5만원 <서울캠퍼스 미계명 명단>

강중호 강호성 정원철 고 승 고원관 고희복 구분경 구분성 권우경 권순식 김경열 김경준 김경호 김경호 김광용 김국원 김대우 김두수 김두인 김명 김석훈 김성호 김영준 김용진 김우아 김원진 김익태 김재남 김재동 김재일 김경자 김경진 김경태 김중복 김지호 김진욱 김형석 김해숙 김용근 김화순 김희복 노정환 문상용 민우성 박길원 박성태 박성태 박승우 박용개 박용환 박정영 박정자 박해진 박정진 배경호 배기선 백재혁 백춘기 백원수 박동진 서원도 서정원 서창현 성기현 소병철 손준택 송기서 신수송 신영철 신철승 신혜영 안기욱 안길준 안길찬 안미숙 안병규 안승복 염경명 예영식 오유진 오정남 유근중 유길용 유병식 유옥문 유정수 유영환 유태호 유광호 윤명식 이갑수 이강희 이경자 이규춘 이길남 이덕구 이등은 이문희 이인희 이봉재 이상하 이상현 이정태 이순정 이영순 이우정 이계민 이종구 이종병 이종영 이희관 이희숙 임상준 임진성 장복필 장부남 장일성 장병국 전태대 정동순 정병호 정성호 정영준 정중호 정영준 조규배 조복영 조병호 조세태 조영우 조운영 조원정 진진정 채갑명 최금명 최수송 최영아 최영일 최혜순 하용승 한만신 한만호 한상부 한용환 한은석 홍건산 홍서진 홍지서 홍종택 홍해숙 황도일 황의진

※학교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 기획조정실 기획과(02-260-3019·20) ·경주 기획홍보과(0561-770-2019·20)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단과대 학생회 선거-풍부한 공약속에 진행

경주 오늘 (21일) 부터 단대선거 유세돌입

각단과대학생회 선거가 유세 및 공청회를 통한 학생들의 지지 및 자기 학생회사업의 공약을 제시하며 학내일선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단체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제25대 불교대 학생회 정·부회장 선거 1차유세가 지난 13일 본관(C201)에서 열렸다.

불교자주 불교혁신의 맥박으로 살아있는 청년여대여 부명의 땅 한반도에 지혜의 별을 울리며, 우리 통일 단결의 대지에 불국정토의 새마을을 일구어라' 라는 기치를 내걸고 단독 입후보한 김창모(불교3)·남철수(신학3) 조는 이날 유세에서 유권자들에게 학생들의 힘과 지혜를 모아 자주적 학생회 건설, 학생들의 삶으로부터 자주학원 건설, 동국총동종의 공약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제9대 이과대 정·부학생회 당선자에 기호1번 김태용(통계3), 박준용(화학2) 조는 공약으로 민주정부수립, 재단혁신을 통한 재단전일급확충, 교수제

용에 학생참여와 공개강의평가 제도 도입, 실험실습비의 올바른 이용, 애국적 사회진출을 위한 소모임 신설 활성화 적극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기호2번 김민규(화학3), 이화선(물리3) 조의 공약은 '추대 민중대통령', 간부교양학 교등 운영위강화, 취업문제에 따른 과학관 설립, 교육환경개선, 과학관의 수도시설확충, 명진관지붕 개보수, 백상 가격 10%할인 등이다.

제25대 농과대학생회 정·부회 당선자김일정이 지난 12일 일경, 19일 후보자공고를 시작으로 선거일정에 들어갔다.

지난 16일 후보자등록마감결과 박준(입학3), 이규석(농경3) 조가 단독출마했다. 선거일정은 오는 22일 1차유세, 26일 2차유세가 오후 1시 회화관에서 열리며 27일 투표가 실시된다.

한편 경주캠퍼스의 경우 총학생회, 총여학생회, 한의대, 대학을 제외한 재학생자치기구 후보가 등록이 마감되어 오



○지난 20일 불교대 학생회 정·부회장 투표를 필두로 각단과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늘(21일) 오후 1시 인문대·자연대 합동유세를 시작으로 선거일에 돌입한다.

후보자 등록 상황을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이정현(통국영국회) 김상학(로라제트) 조가 단독출마 △삼일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김동명(행정3), 김홍수(야간법3) 조가 단독출마 △삼일경제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기호1번 홍분표(육사3) 윤은수(국문3) 조, 기호2번 김진오(철학3) 황대성(미술3) 조가 입후보 했다.

자연과학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박용주(수교3), 김병주(화학3) 조가 단독출마 △법정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김동명(행정3), 김홍수(야간법3) 조가 단독출마 △삼일경제대학생회 정·부회장 선거에 기호1번 고일두(무역3), 오동근(관

경3) 조, 기호2번 이승준(경제3), 문윤배(무역3) 조, 기호3번 윤진호(경제3), 권태욱(무역3) 조가 각각 입후보 했다.

올해 단대선거는 인문대·상경대 학생회 선거를 제외하고는 단독후보 현상이 두드러

제25대 총대선거 정주영·최성곤조 당선 이종섭·인성교조 선출 경주

제25대 총대의원회 정·부회 당선에서 '전국대의 건설'의 기치 높이 들고 일민동약 자주권 실현의 과수꾼으로라는 구호를 내건 기호1번 정주영(야간법3) 조, 최성곤(사회4) 조가 지난 15, 16일 양일간 있었던 대의원투표를 통해 당선이 확

석장사지 발굴조사

경주캠퍼스 박물관(관장은 김길음·고미사학) 주위 '석장사지 2차 발굴조사'가 지난날 15일부터 지난 14일까지 한달에 걸쳐 실시됐다.

사찰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이번 발굴조사에서 당초의 진물터는 남아있지 않아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었으나 1차 발굴조사때 출토된 △탑상문전 △연기법상문전 △소조신상상편 △삼암대사각대상이 출토되었고 특히, 1차때 출토되지 않은 △보살화문전 △소조신상상을 △스키련과 편등이 발굴됐다.

동연선거 일정 공고

제9대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 선거일정이 지난 14일 동연 비상총회를 통해 확정,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나형운·철학4) 구성과 함께 다음과 같이 공고됐다.

총학 체육부 주최 선수위원의 밤

본교 체육부 선수들을 위한

범동국 차원의 대책마련 강구돼야

경부고속전철 경주권 노선 계획이 학계와 경주시민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본교 경주캠퍼스를 관통하는 '비교노선안'으로 확정, 큰 무리를 받고 있다.

서영찬시 남쪽을 거쳐 경주권 서면과 진천읍을 통과, 대남면으로 이어지는 경주의과우회노선)이 10월 교통개발연구회 철도연구실의 교통영향평가에 따라 경주에서 경주시 서북부를 지나 경주캠퍼스를 관통하는 경주시 인경노선으로 변경,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렇듯 학계·경주시민의 반대입장에도 불구하고, 공사기간이 9.9km나 더 길고 1천1백16억의 공사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비교노선안은 별다른 반대운동이 없으면 변경되는 어려움이 있다.

경주캠퍼스 체육부 주최로 열린 이날의 행사는 체육실 임직원을 포함한 전체체육부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단한 형식으로 베풀어졌다.

조박초 회장 명예학위 수여 한·중불교 교류 증진에 공헌

본교는 동북아시아 불교지도자 평화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조박초(86세) 중국불교협회 회장에 명예 학사학위를 지난 19일 오후 2시 총장실에서 수여했다.

학과소식

서울캠퍼스 무역학과(주간)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누리체'를 개최한다. 3일에 걸쳐 펼쳐지는 이번행사는 체육대회, 창작마당극, 무역인의 밤 등 다채로운 행사일정으로 진행된다.

내년 신규교수 60명 충원 이공계 및 미충원학과 우선

93학년도 신규교수충원계획이 지난 15일 재단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 바 있다.

교무처가 지난 20일 발표한 93학년도 교수충원계획에 의하면 이공계 29명, 서울 21명, 경주 10명 등 일반계열 31명의 교수가 신규채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주 불교도 화합 한마당 열어 '한국불교...' 세미나 등 다양

경주캠퍼스 '92 불교도 화합의 한마당'이 지난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정각린 및 교내일원에서 불교도연합회(회장=장영순·불교3) 주례로 진행된다.

내년도 교수충원의 특징에 대해 정병조(국민윤리학) 교무처장은 '93학년도 이·공계열 학과평가에 해당과인 화학과·기계공학과의 교수충원, 실험실습기자재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며 올해 미충원학과의 적극적인 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라고 밝혔다.

경주 DID전화 개통 안내전화: 0561-770-2114

경주 직원노조 출범식 민주적 운영 및 조직강화 주력

경주캠퍼스 제5대 직원노조(위원장=성일우) 출범식이 지난 13일 원효관(A 309)에서 조함원님 내외귀빈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출범식은 정일 정·부위원장에 공로패 전달, 인선이 끝난 집행부와 운영위원의 소개로 이어졌다.

또한 신임 위원장은 취임사

를 통해 △민주적 노조운영 △조합의 조직력 강화 △학내외 단대와의 유기적인 관계 강화 △노사간 상호신뢰에 바탕을 둔 대화를 통한 문제타결 등의 공약을 밝혔다.

한편 노조위원장은 학생들이 노학연대의 차원에서 학교노조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입수없는(?) 대학행정

○...인간공학은 산업체뿐만이 아닌 대학행정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건다.

양심팔아 얻은 학점 - 기업체에서 의면하면 어떡하리구

가야 '취미'를 들었네. 껌껌이 어찌네'하며 감정싸움으로 비화돼 이의 조속한 해결점을 보이지 않고 나날이 늘어만가는 대외보에 학생들은 지난시기의 학생회를 그리워한다.

성적증명서를 끈이 끈대로 받지 않음

예년과 달리 경선과 높은 투표율이 눈길을 끈 이번 선거에 대해 신인 총대위원장 정주영군은 '제25대 총대의 총선거 3원연기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대한 대항적·객관적 평가의 장'이었으며 '총대의 위상정립과 개혁이 필요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선거총보 전략 질서

○...총선거 기간을 맞아 인종·비인종이 가생선대 시범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긴 하지만 원지 캐리리컬하다고

성적증명서를 끈이 끈대로 받지 않음

예년과 달리 경선과 높은 투표율이 눈길을 끈 이번 선거에 대해 신인 총대위원장 정주영군은 '제25대 총대의 총선거 3원연기과정에서의 비민주성에 대한 대항적·객관적 평가의 장'이었으며 '총대의 위상정립과 개혁이 필요시점'이라고 밝혔다.

신 선거총보 전략 질서

○...총선거 기간을 맞아 인종·비인종이 가생선대 시범을 포기한 학생들에게 희망을 주긴 하지만 원지 캐리리컬하다고

(주)금강·고려화학·금강종합건설은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국내의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에 있어서 장성에 자리한 (주)금강, 고려화학, 금강종합건설은 더욱 더 앞선 기술과 투자를 통해 국내·외에 그 명성을 심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부한 무기질 광식자원을 활용하여 보온 단열재, 내외장재 및 관유리, 자동차유리 등 유리산업에 이르기까지 조영역의 극한 물성에 도전하는 - (주)금강, 일반 페인트에서 선박, 자동차, 컨테이너, 반도체 봉지까지 세계 굴지의 화학기업과 당당히 경쟁하며 정밀화학산업에 이바지하는 - 고려화학(주), 우수한 인적자원과 앞선 기술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을 추구하는 - 금강종합건설(주)은 이 땅의 무기·유기화학 및 건설분야의 선두주자로서 보다 풍요로운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금강고려화학 ▲ 금강종합건설(주)

사극드라마의 새로운 사건 '일출봉'

양반딧 애기 아닌 민중의 삶다뤄

유연히 드라마 '일출봉'이 눈에 들어왔다. 사극의 느낌이어서 그저 그런 양반들의 애육놀이였거나 생각했다가 나는 자제를 가다듬었다.



노비 영등과 서자 진성은 '이기정수'를 찾아 정주성으로 떠나 봉건제도에 맞서 싸운다. 관권의 승리로 투쟁은 끝나지만 민중의 패배는 아니다. 아직도 정주성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누대로 이어지는 종놈의 입에서 이기정수가 튀어나올 줄은 짐작하지 못했다. 미륵과 마창까지 이기정수는 봉건적 삶의 양식 속에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뽐내며 배웠던 버린 피지배계급, 즉 민중의 변혁에 대한 염원으로 오랜 세월 존재해왔다.

노비 영등과 서자 진성은 '이기정수'를 찾아 정주성으로 떠나 봉건제도에 맞서 싸운다. 관권의 승리로 투쟁은 끝나지만 민중의 패배는 아니다. 아직도 정주성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출신이 양반이라고 해서 양반계급일 수는 없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 이기정수가 있기 때문이었다.

'일출봉'을 보며 드라마의 전개가 업산의 친부모를 만나는 쪽으로 나가면 어찌나 하고 우려했다. 그것은 우리는 '일출봉'이 다른 사극과 똑같이 질 낮은 사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출봉'에는 업산이란 존재한 것이 아니고 영등이와 진성이 존재하고 있었다.

신이 있고 틀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에서나 똑 같은 이름의 산과 설화를 만나게 된다. 장군봉, 국사봉, 일출봉이 그렇고 이기정수의 설화도 그렇다. 영화 '은마'는 오지 않는다'의 메타포도 장군봉과 이기정수의 설화이다.

대항하여 순리에 역행함으로써 이데올로기의 향연이 아닌 퇴락으로의 인간 부조리 상을 되풀이 보고자 했다. 11월 29일(목) 4시 30분, 7시 30분. 동승아트센터 소극장. 741-3897.

관권의 승리가 곧 민중의 패배는 아니다. '일출봉'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업산, 영등, 은옥, 진성 그리고 민중을 비롯한 그의 많은 민중들, 사람들의 가슴을 통하여..

▲ 몇해 전 한 대기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업PR책자의 제호를 고민했다. 그 책자의 제호는 주독자 대학생인 만큼 대학생들이 보편적으로 지나거나 지나야 하는 '젊은이'의 특징을 부각시켜야 했고 그들의 장사 이지도 제호에 상징적으로 선전되어야 했다. 선정그룹의 '지성과 패기'는 그렇게 탄생되었고 지금은 많은 대학생에게 호평을 받고 있는 사보중의 하나로 자리를 굳혔다.

한편 생각하는 신중함, 또한 한 현상에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 통찰력이 젊은이에게 '꼭'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시정'은 내 학생이다. 그리고 옳다고 판단된 것이라면 운동의 순수함을 가지고 과감히 실천하는 추진력, 어떠한 압력에 굴하지 않고 나아가

하는 이쯤까지 느끼게 된다. 비록 정과간의 이견차가 있을지언정 품에도 담지 못할 '외과'가 내사보의 저술을 '시정'이라고 단언 공격, 개인도, 분열 등의 단어 나열로 꾀를 맺는 현실을 보면서 모두는 분노했을 것이다. 아니 서글퍼했을지 모른다.



진로 그룹은 삶의 힘찬 맥박을 믿습니다. 젊기 때문에 실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젊기 때문에 자유로울 권리가 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 하지 않는 젊은 패기로 자신의 뜻을 자유롭게 펼쳐갈 수 있는 곳 - 진로로 오십시오!

정도 상 <소설가> '일출봉'을 보며 드라마의 전개가 업산의 친부모를 만나는 쪽으로 나가면 어찌나 하고 우려했다. 그것은 우리는 '일출봉'이 다른 사극과 똑같이 질 낮은 사극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이 영화의 이해는 그 사회의 문화적 이해 없이는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상업주의문화에 반기를 들고 60년대에 형성됐던 지하(Underground) 문화 속에서 컬트영화는 새롭게 탄생하는 것이다.

신촌블루스 김별 아 지음 <도서출판 죽산 4천원>

'신촌블루스'는 김별이의 첫 창작소설집이다. 김별이는 올해 연세대 국문학과를 졸업한 젊은 창작가이다. 재학시절 총학생회 문화부장을 하는 등 학생운동가였던 그녀는 90년 제1회 청년실업문학상에 '봄비'로 당선되기도 한 역량있는 문예일꾼이다.

'신촌블루스'는 '이기정' '누가 나에게 이 길을' '유년일기' 등 총 9편의 중·단편으로 구성된 창작집이다. 9편 모두 우리사회의 모순구조를 파헤치고 있고 이러한 모순에 찬 세상을 고발하며 의식적으로 싸워나가는 인물들을 날카로운 필치로 그리고 있다.

90년대 학생운동 통해 사회모순 비판

'개기월식' '후락도' '유년일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누가 떠나면 날 비가 왔다'로 시작하는 '누가...' 이 길은 주인공 영우가 집안(현장으로 떠난 누나, 한때 학생운동에 몸 담았다 군 제대 후 변절한 한 형)과 갈등에 빠져있다. 어느날 집회 도중 화염병으로 연행되고 풀려난후 갈등과 반민으로 괴로워하던 중 누나가 친구를 통해 전해온 편지를 읽고 다시 힘을 얻는 줄거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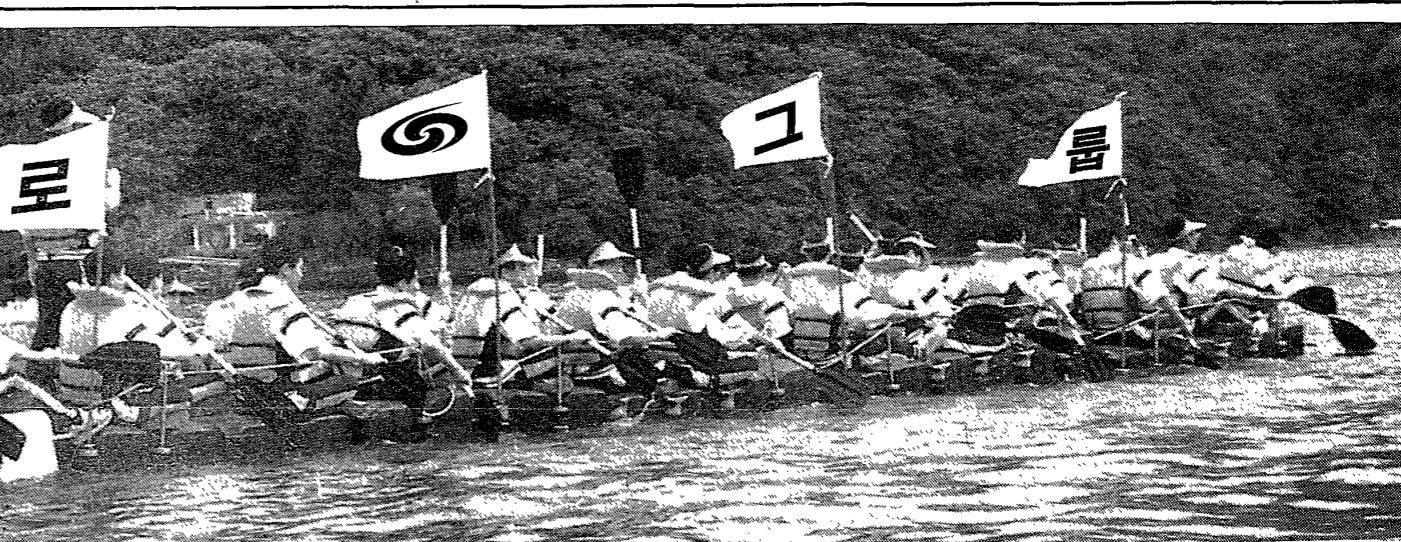
이러한 불공정도도 역사를 왜곡시키고 역사왜곡을 피하기 위해 했던 언론이 공정성을 따졌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이에 선거감시보도연대회의(이하 선거연) 대표 정동익·민주언론운동협의회 회장)은 공정정보와 민주언론을 위한 문화공연 '거짓없이'를 오는 31일 오후 4시, 7시 두차례 연세대 대강당에서 갖는다.

컬트(cult) 영화

요즘 '밀리키트스 사람들' '블루벨벳' 등 이른바 컬트영화가 붐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컬트영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신기하다는 이유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좀 무리가 따를 듯하다. 본래 컬트(cult)란 '의식, 숭배, 존경, 동경, 예찬'을 뜻하는 것으로, 컬트영화는 기존의 물질소비적이고 대중오락성향이 아닌 문명비판적이고 대항적인 성격을 갖고 있으며 다소 이단적인 성격이 짙다.

선감연 주최 공정정보와 민주언론을 위한 문화공연 '거짓없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언론의 편파보도도 또다시 활개를 치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보도도 역사를 왜곡시키고 역사왜곡을 피하기 위해 했던 언론이 공정성을 따졌고 국민과 함께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진로 그룹 인력관리위원회. 1. 모집대상: (주)진로, 진로주어스(주), (주)진로유니버시티디자인, (주)진로종합기술, (주)진로제약, 진로건설(주), 연향건설(주), (주)진로종합기술. 2. 모집분야: (주)진로, 진로주어스(주), (주)진로유니버시티디자인, (주)진로종합기술, (주)진로제약, 진로건설(주), 연향건설(주), (주)진로종합기술.